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발우회



2월23일 화성 자제정사에 봉사활동을 나온 발우회 회원들이 호박죽을 끓이기 위해 아궁이에 장작을 넣는 모습.

“일 넘쳐도 늘 즐거워요”

“저기 저 동산이 ‘발우회 동산’ 이에 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봉사단 발우회 이귀례(49)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잔디와 꽃나무들이 조성된 동산. 독거 할머니들과 노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사는 화성 자제정사(이사장 모회)에서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발우회 회원들이 다들 고개를 만들어낸 동산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자제정사를 찾는 발우회는 2월 23일에도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라 바쁘다.

“오늘은 메주를 뒤여야겠어요. 냄새도 구수한 것이, 잘 띄워졌네요.”

지난 겨울 띄웠던 메주를 ‘보물’이라 칭성스럽게 정리하는 손길에서 따스함이 묻어난다.

메주를 뒤고 나자 발우회 회원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호박죽을 끓이기 시작한

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부터 쉽지가 않음은 저어주는 것까지 모두가 잔손이 가는 일이다.

이렇게, 5년째 각종 봉사활동을 섬리하는 발우회도 ‘보물’이 날 정도로 자제정사에는 항상 일할 것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정사로 향한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를 임정수(55) 팀장은 자제정사 법인사무국장 경덕 스님의 말에서 찾는다.

“새로운 열골 한 번 비취주는 것 자체가 외로운 자제정사 할머니들에게 큰 봉사활동이라고 하셔서 부담 없이 찾아오다 보니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오게 됐네요.”

“봄이 오면 갈고 다듬어야 할 땅이 많아 일거리가 더 늘겠다”고 말하는 발우회 회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봉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김강진 기자

■ 후원해 주세요 - 서울 미아6동 ‘자비의 집’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 ‘자비의 집(원장 신응권)’이 93년부터 서울 미아 6동에 자리 잡고 이웃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해왔다. 뿐만 아니라 노인 잔치, 의료지원,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의 결연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이 곳

을 돕고 있는 발우회 이귀례씨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항상 물품이 부족하다”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나눔 수 있는 것을 지원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945-4200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기도금 15% 복지기금으로

조계사, 나눔 운동... '회향'의 참뜻 살려

부처님 출가제일을 보름 앞둔 3월 2일 조계사 신도회사무실. 기도 접수를 마친 신도들의 입가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정 아무개’ 보살은 이번 출가제일 법회 기도금으로 2만원을 냈다. 정 보살은 여느 때보다 더 흐릿한 마음이었다. 자신이 낸 기도비 가운데 3000원이 조계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눔의 15% 운동”으로 조계사 신도들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자이타이(自利利他) 보살행을 골바로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조계사주지 원장은 올해부터 신도들이 낸 각종 기도금의 15%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이번 사실을 3월 10일(음 2월 1일) 열리는 조하루법회에서 조계사 신도와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현재 조계사에서 열리는 기도는 각종 기념제일기도

와 초하루, 보름, 생일, 49제 등 30여종에 달한다. 조계사는 이번 ‘나눔의 15% 운동’이 종교 단체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원담 스님은 “종단 소속 사람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사회적 회향에 사용하도록 공식화 하는데 조계사가 앞장선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는 기존에도 매년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각종 불사와 사찰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사회복지에 배분하는 형태여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 신도들이 낸 기도 동점비의 15%는 즉시 사회복지기금 통장으로 적립된다. 이렇게 되면 사찰의 재정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복지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본사, 남아시아 3차성금 807만원 조계종에 전달

본사가 ‘나눔의 손잡기’를 통해 모은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돕기 3차 성금 807만원을 3월 3일 조계종에 전달했다.

본사 서정만 이사는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에게 제천 송화사(160만원), 명상의집 샬상(500만원), 일봉선교종(147만원) 등이 기탁한 성금 807만원을 전달했다.

서정만 이사는 “현대불교는 지난해부터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며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 계속 담지하고 있어 세 번째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정념 스님은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본사 서정만 이사가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본사는 3차례에 걸쳐 총 2억 3천 940만원의 성금을 조계종에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조계종에 지진·해일 구호성금 보내주신분(2월 25-3월 3일)

14교구별에서 5220만8000원 광주 정광사 1000만원 현대 불교신문 807만원 통일동보본사 100만원 17교구금산사 2497만9000원 천안안양암심도일동 100만원 18교구백양사 1568만3000원 삼교북아원 100만원 제주불교신문 502만 9600원 최상숙 1만원 진천보탈사 100만원 성불사신도회

134만4810원 화계사(성광스님) 1000만원 총 128,654,410원 조계종 재난구호 성금 총액(2004년 12월 28일~2005년 3월 3일): 1,871,574,462원 (ARS 111329 5,565,000원 포함)

“이젠 말할 수 있어요”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햇살교실’ 졸업식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싶어요.” 사회복지재단 승가원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이 진행해온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햇살교실’에서 2월 25일 첫 번째 졸업생들이 나왔다. 훈련을 통해 당당하게 말할 줄 알게 된 영석(12)를 비롯한 네 명의 장애아동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의 기쁨은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있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대견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날 행사는 관장 성화 스님의 격려사(사신)와 ‘햇살교실’ 후배들의 송사, 졸업생의 답사, 또 재학생과 졸업생 가족들 간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으며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증서와 활동모음이 담긴 앨범이 함께 전달됐다.

한편 ‘햇살교실’은 앞으로도 박물관·영화관 관람 등의 프로그램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운영된다. (031)716-4215 김강진 기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이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기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이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특고노인 유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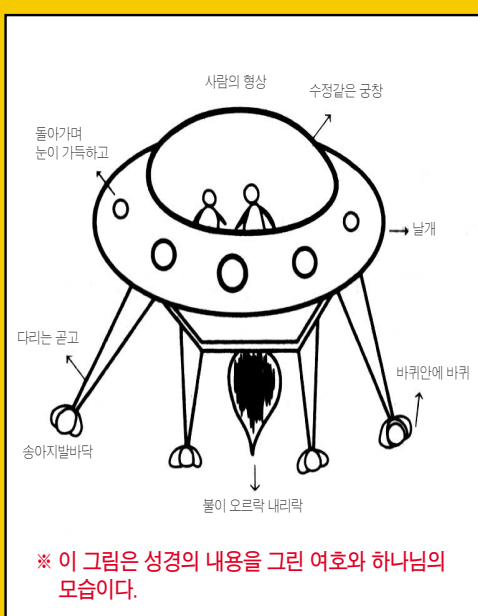
UFO와 하나님의 실체

몇 만년에서 몇천년전까지 지구를 찾아온 외계인(UFO)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며 인간을 지배했다. 그 기록이 기독교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 성경(에스겔 1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 폭풍과 큰 구름속에서 나타난다.
- ▷ 반짝반짝 빛나는 단식(쇠덩이) 같은 것이다.
- ▷ 날개가 달려 있다.
- ▷ 다리는 곧고 숨이 불바닥같다.
- ▷ 비위가 달려 있다.
- ▷ 눈이 사방에 달려 있다.(유리창으로 추정)
- ▷ 이동할 때 번개같이 빠르다.
- ▷ 수정같은 궁창이 있다.(dome)같은 둥근 유리창으로 추정)
- ▷ 날을 때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씨제트본사)
- ▷ 궁창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 이상 나열한 모양이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정확하게 UFO이다. 만약 UFO가 아니라면 괴물의 형상임에 틀림없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에 광명이 비친다.



\* 이 그림은 성경의 내용을 그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정가 8,500원 도서출판 대명 TEL.042)623-0829 FAX.042)621-0110

지식인(知識人)일수록 허황한 신(神·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미신에 잘 빠진다.

부시맨이 콜라병을 하나님 선물로 받고 이를 神主모시듯 하는 것처럼 원시시대에 UFO(우주인)를 유입신으로 착각하고 맹신하여 신학(神學)을 연구했다는 그 신학은 궤변과 미과학 비합리 비도덕적 괴리로 뒤범벅이 된 것이다. 기독교 성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지의 미개한 원주민이 비행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사람죽이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부처님이 화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 책 한편으로 기독교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100% UFO라고 증명한 책  
우리 모두는 21세기 르네상스를 주도할 역군임을 자각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는 것을...

\* 광고후원은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에서 하는 것임.  
\* 뜻이 있으신 분은 회원에 (054-633-1138, 010-2465-1357) 동참하십시오.

권·心

(만의 위대한 힘)

만성지음

근의 최초 해설서

근은 우주에 존재하는 부호중에 가장 많은 진리가 함축된 위대한 힘을 갖춘 종합적 부호이다. 이 책을 읽으면 근의 위대한 신비를 알 수 있다.

도서출판 대명 정가 7,500원

범민족 깨닫기 운동 모임

민족의 바른 정서와 바른 종교와 바른 의식의 전환운동으로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민족의 깨닫기 운동을 주도하는 모임

회장 김도기

회·원·모·집

TEL. 054)633-1138, 010-2465-1357